

국토교통 R&D 수도권 60% 쏠림… 전남 0.5%·광주 0.7%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에도 2.48% 배정 그쳐 지역 특화산업 육성 ‘엇박자’…“평가기준 재검토”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국가 첨단 인프라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국토교통 분야 R&D(연구개발) 예산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려 있어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갑)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

술진흥원(KAIA) 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 분야 R&D 예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으로 고착화 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 R&D 전체 예산 5624억원 가운데 수도권에 배정된 예산은 59.2% (3328억원)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배정된 40.8%의 예산

중에서도 연구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17.4%)을 제외하면, 나머지 13개 광역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의 23.4%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0.5%)과 광주(0.7%), 강원(1.0%)은 1% 이하의 초라한 예산을 배정받아 지역적 소외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최근 6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수도권이 전체 예산의 과반을 차지하며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대상 예산 배분에서도 양극화는 뚜렷했다.

신학협력단 위주로 진행되는 대학 연구

사업 역시 총 783억원의 예산 중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이 차지했다.

이들 상위 10개 대학에 배정된 예산만 405억원 (일반 대학 전체 예산의 51.7%)에 달하며, 권역별로도 수도권 대학이 전체의 77.7%를 차지해 비수도권 대학의 연구 참여 기회가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지역 산업 육성 정책과 실제 R&D 예산 배정 간의 심각한 ‘엇박자’도 지적됐다.

전국 최초로 도시 전체가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되며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육성되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당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정작 2026년 국토교통 R&D 중 자율주행 관련 155개 과제(총 511.8억원) 중 단 5개 과제, 12.6억원(2.48%)을 배정받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지역 주도 특화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지역에는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만 부여하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핵심 기술 개발(R&D)은 또다시 수도권에 몰아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불균형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전담 기관의 평가 및 제도적 장치 미비가 꼽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과제 선정 평가 시 비수도권 기관에 대한 가점 항목은 ‘해당사

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연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연구기관이 애초에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조인철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을 건언해야 할 국토교통 R&D 예산이 오히려 수도권에 지속적으로 편중되며 지역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행 과제 평가 기준을 전면 검토해 신규 과제 공모 시 비수도권 기관 참여를 제도화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 주도 R&D 제도를 검토하는 등, 국토교통 연구개발 또한 ‘5극 3축’ 정책에 발맞춰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

임문영, 리사 수에 광주 ‘AI 연구센터’ 설립 제안

3월 만남 이어 친서로 협력 구체화 방안 제시 반도체 팹·국가AIDC·국산 NPU 인프라 연계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광산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글로벌반도체 기업 AMD의 리사 수(Lisa Su) 최고경영자(CEO)에게 광주 AI 연구·혁신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에서 추진되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기존 AI 인프라를 결합해 AMD의 첨단 기술과 국내 AI반도체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거점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지난 7일 리사 수 CEO에게 보낸 친서에서 “AMD의 AI 연구·혁신 거점을 광주에 마련하고,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국내 AI반도체 기업,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과 함께 공동 연구와 실증을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서울에서 이뤄진 리사 수 CEO를 하정우 현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전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만나 한국의 AI 인프라 확충과 지역 산업의 AI 전환, 차세대 AI 인재양성 등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의원은 “광주의 강점에 AMD의 CPU·GPU 기술을 결합하면 국산 NPU와의 공동 연구·실증은 물론, 반도체 제조와 AI 컴퓨팅이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리사 수 CEO에게 설명했다.

AMD 연구센터를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닌 국내 AI반도체 기업과 글로벌 기술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협력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광주의 인재양성 기반도 강점으로 제시했다.

최근 출범한 GIST-Arm 스쿨은 향후 5년간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14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및 인재양성 기반이 AMD의 광주 진출에도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의원은 친서에서 “광주는 AMD의 세계적인 컴퓨팅 기술력과 대한민국 차세대 AI반도체 혁신이 만나는 거점이 될 충분한 기반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예산 지원을 뒷받침하고, 정부와 광주시, AICA, 산업계 및 학계의 협력을 이끌어 실질적인 성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리사 수 CEO와 나눴던 AI 협력의 비전이 광주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며 후속 만남을 통한 협력방안 논의를 제안했다.

이성호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국가데이터처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전남 쌀 재배면적 0.9%·생산량 3.4% ↑

광주 소폭 줄어…전국 감소 전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지역의 벼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모두 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광주는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생산량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쌀 예상생산량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쌀 예상생산량은 73만 8159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예상생산량 351만8455t의 약 21.0%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합특별시 단위의 쌀 생산량 통계가 작성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벼 재배면적은 14만8349ha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남이 14만3696ha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광주는 4653ha로 나타났다. 논벼와 밭벼를 합친 전체 생산량은 전남 71만5779t, 광주 2만2380t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도 눈에 띄는 생산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의 올해 벼 재배면적은 14만3696ha로 지난해 14만2443ha보다 0.9% 늘었다. 10a당 생산량도 482kg에서 498kg으로 3.4% 증가하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지난해 68만6504t에서 올해 71만5779t으로 4.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광주는 재배면적이 줄었다. 올해 광주의 벼 재배면적은 4653ha로 지난해 4777ha보다 2.5% 감소했다. 다만 10a당

생산량은 472kg에서 481kg으로 2.0% 증가하면서 면적 감소 폭을 일부 상쇄했다. 이에 따라 쌀 생산량은 지난해 2만2510t에서 올해 2만2376t으로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생산량 증가에는 단위면적당 생산성 향상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했던 반면, 지난해 잦은 강우로 병충해가 컸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벼가 가지를 치는 분얼기와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의 기상 여건이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포기당 이삭수와 이삭당 낱알 수가 늘어난 데다 벼알이 여무는 9월 일조시간도 충분히 10a당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적으로는 쌀 생산 기반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드는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은 67만69ha로 지난해보다 1.1% 감소했다. 반면 10a당 생산량은 525kg으로 지난해보다 0.5%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쌀 예상생산량은 351만8455t으로 0.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재배면적 감소는 전락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 전환사업 등 쌀 적정 생산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생산량 감소 폭은 재배면적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장기적으로 쌀 생산 기반 자체가 줄어들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전국 벼 재배면적은 2020년 72만6432ha에서 2026년 67만69ha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쌀 생산량도 350만7000t에서 351만8000t으로 큰 폭의 변화는 없었지만, 재배면적 축소와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김은지 기자 eunzy@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최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인재양성 기부금 기탁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흥그룹,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100억 기부

광주특별시와 5년간 20억원씩 기탁 업무협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중흥그룹은 최근 광주청사 비즈니스룸에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지역 우수 인재 정착을 위한 100억원 기부금 기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민행배 광주특별시장과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김해근 중흥토건 대표, 이경호 중흥건설 대표, 김정훈 대우건설 토목본부장, 신경식 중흥건설 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중흥

그룹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에 걸쳐 매년 20억원씩 총 100억원의 기부금을 기탁한다.

기부금은 △지역 전략산업 기업유치 활동 및 전문인력 양성·연구 등 인프라 구축 △지역 전략산업, 이공계, 첨단 신기술 분야 우수 대학생 및 청년 연구인재 지원을 위한 미래인재 육성 장학금 △지역 정주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게 된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은 “이번 기부금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인공지능(AI)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정착에 의미있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100억원을 기탁한 중흥그룹에 감사드린다”며 “이 기금이 기업과 사람, 연구와 실험 기반을 단단하게 있고 미래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소중히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몽골 울란바토르에 ‘2026 중앙아시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111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과 4000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특별시, 중앙아시아·몽골서 111만달러 수출협약

시장개척단 파견…현장 계약·후속 협의로 실제 수출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몽골 울란바토르에 ‘2026 중앙아시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111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과 4000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현장 계약뿐 아니라 샘플·견적 요청과 독점 공급 제안 등 후속 협의로 이어져 향후 실제 수출계약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중앙아시아와 몽골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공산품 수입 수요가 높은 시장이다. 특히 경제 성장과 젊은 인구,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소비재와 농수산식품의 전략적 수출 거점으로 꼽힌다. 시장개척단 상담 결과 우즈베키스탄 타

슈켄트에서는 봉강친환경 50만달러, 푸른정식품 15만달러 등 총 65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했다. 또 메사코사, 서광식품, 에스에이저랩, 위로푸드가 각각 1000달러씩 총 4000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해 실질적 수출 성과도 거뒀다.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도 전남광주기업의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탰다.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은 ‘K-이니셔티브’ 핵심 전략인 싱글윈도우를 통해 지상사업 의뢰, 한인회 등과 협력해 현지 시장정보와 기업 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열린 몽골 울란바토르 상담회에서는 서광식품 10만달러, 에스에이저랩 10

만달러, 위로푸드 10만달러, 푸른정식품 10만달러, 봉강친환경 5만달러, 성지에프 엔디 1만달러 등 총 46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했다.

통합특별시는 11~12월 온라인 후속 간담회를 열어 현지 구매업체와 참여기업 간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수출협약과 상담 성과가 실제 계약과 지속적 수출로 이어지도록 진행 상황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척단은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소비 수요와 한류에 대한 관심을 지역 기업의 수출 기회로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성과가 일회성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과 지속적인 수출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디자인진흥원 9대 원장 조고미 전 호남대 교수 임명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조고미 전 호남대학교 교수가 제9대 원장으로 임명됐다고 11일 밝혔다.

조 원장은 호남대 뷰티미용학과 교수와 광주여대 미용과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광주전남디자인총연합회 제20대 이사를 맡는 등 지역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조 원장은 인공지능(AI)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산업·지역 환경의 변화를 디자인산업의 새로운 기회로 제시했다.

그는 “광주가 가진 AI와 첨단산업, 디자인 역량이 전남 22개 시·군의 산업과 자원을 만나면 디자인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질 것”이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과 디자이너를 연결하고, 디자인이 기업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잘해낸 사업은 키우고 변화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고치면서 지역 기업과 디자이너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송홍 기자